



민족주의의 저명한 철학자 피히테는 교사의 역할을 두고 “청소년에게 고귀함과 천박함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전에 그들을 고귀함에 익숙하게 하고 저속함과 천박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권위 있는 인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지녔기 때문에, 교사의 비뚤어지고 저속한 생각과 행동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피히테는 우려했다. 또한 이 시점에 이르면 아이들은 이러한 개념과 행동을 수용하는 과정을 사회 진보의 신호로 여기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최근 몇 년간 깨어난 좌파는 이전 세대가 학생의 흥미, 필요, 발달을 우선시하는 최상의 교육 체제를 설계하기 위해 수 세기에 걸쳐 수행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작업을 역행시키는 일에 전념해 온 것처럼 보인다. 즉, 깨어난 좌파의 신봉자들은 아이들이 성장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유로운 방식으로 지식을 처리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개인으로 성장하며, 평생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최근 진보, 포용성, 평등, 다양성 등의 미명 하에 왜곡되어 빠르게 퍼져 나가는 사회 변화는 과거의 계몽주의가 깨어난 좌파의 어둠에까지 다다르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깨어난 좌파가 추진하는 서구 교육 체제의 타락과 궁극적 붕괴는 언젠가 자격 없고 무책임하며 부패한 전문가 세대를 삶의 전반에 걸친 영역에서 지도자 위치에 올려놓을 것이며, 이는 민족 국가체제의 조용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넬슨 만델라는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한 바 있다. 깨어난 좌파를 지지하는 세계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 교육을 무기화함으로써 자기 망각을 유도하고, 자유를 제거하고, 역사를 지우고, 문화와 전통, 종교적 믿음을 축소하여 결국 민족 국가체제를 파괴하고 다수 이해자 지배 체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번역: 박지혜

출처: <https://mises.org/wire/how-woke-left-destroying-education>